

사순 제2주일

기도서 254면 (C해)
 제1독서: 창 세 15,5-12. 17-18
 제2독서: 필 립 3,17-4,1
 특 음: 루 가 9,28b-36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루가 9, 35).

강론



회개 의 의미

최 상 범 신부

현대의 교회가 받고 있는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없이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보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즉 복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다.

오늘 복음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을 밝혀주고 있다. 동시에 핵심 주제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들마다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복음서는 전한다. 오늘 복음에서도 그 분은, 사업에 바쁜 사람들, 일거리에 바쁜 사람들, 걱정거리에 바쁜 사람들, 좀 어떻게 기적이라도 해 주시라고 칭얼거리는 사람들을 위로 하시고 높은 산으로 가셨다고 한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시던 중 그분의 모습이 변한다. 인간이 아닌 하느님의 모습, 영광에 싸여 계신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 주신다. 속 좁은 인간들을 대신하여 베드로가 말한다. "주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회망사항인가!

그러나 오늘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산을 내려오신다. 그리고 세상에 눈이 멀어 그분의 참모습을 알아볼지 못하고, 왜 하느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느냐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통한 영광으로의 탈출, 바로 이것이 고통의 의미에 대한 해답이다. 고통없이는 기쁨도 없듯이 죽음없이는 부활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인으로서 받아야 할 고통은 우리의 일상안에 있다. 자기를 버리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훈들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에로 변모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십자가들인 것이다. 회개란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 부활과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는 초매인 것이다.

(전동 보라신부)



뱀대로 큰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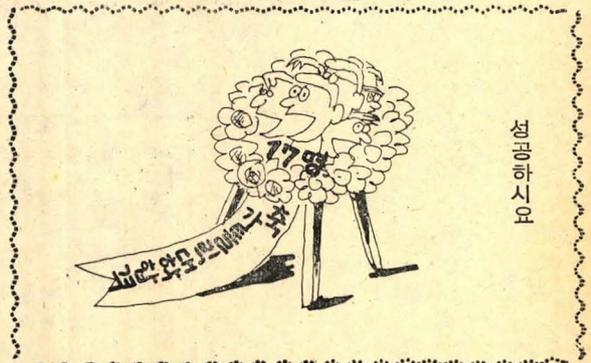
우리 사회에는 가꿈가다가 엉터리없는 것들이 버젓하게 통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도 해도 필리핀의 경우가 그 한 예가 된다. 신문보도나 필리핀 주교단의 성명을 보면 부정선거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마르코스가 큰소리를 친다. 행여나 하고 기대했던 한 가닥의 기대는 무너지고, 우리마저도 큰 아쉬움에 아파한다.

전라도말로 "똥 썩 놨이 뱀대로(도리어) 큰소리 친다"는 말이 있다. 조금 세련된 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하던가! 이런 관에서는 선의의 시민들은 주눅이 들어 지낼 수 밖에 없다. 참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쪽도 처음에는 몇마디 떠들다가 그냥 두고 만다. 발로 돌뿌리차는 것이 힘드니 "세상이 다 그런걸 뭐"라는 달관(達觀?)의 흉내를 내고 만다. 정말로 이래서 되는건가!

작년말 예산국회에서는 자기들 집에 들어가 주어진 임무를 다하겠다는 야당 의원들이 도리어 구석에 물렸다. 그리고 그 사건은 급기야 법정의 문제로까지 비약하고 말았다. 악순환의 한 빌미가 된 것이다. 그리고 옛그제는 취재기자들이 얻어 터지고, 뱀대로 경찰에 폭행을 가했다고 뒤집어 쓰기도 했다. 해도 너무나 하는 일이 어찌면 그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가! 참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인가! 정치인들여, 제발 정치를 좀 해라!

여하튼 이러한 터무니없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흥분하기 마련이고, 소위 스트레스(울분의 찌꺼기? 짜증?)라는게 쌓이기 마련이다. 이걸 어떻게 걸러야 할 것인가! 이런 찌꺼기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때, 언젠가는 터질 수 밖에 없다. 하수도가 막혀서 터지기 전에, 썩는 냄새를 감당하며 하수도를 치우는 심정으로 누군가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은 힘있는 자(양보할 것을 가진 자)가 먼저 해야 된다.

숲 정 이 산책



□사순절 전례

*** 사 순 절 ***

사순절은 참회를 통하여 악을 멀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기이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르 8, 34)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로운 시기다. 교회는 사순절이 두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성세의 회상과 성세의 준비를 통해서, 또한 보속과 여느 때보다 더 큰 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빠스카의 신비의 경축을 준비하는 시기다”(전례현장 109항 참조)라고.

그러므로 사순절 영성의 본질은 첫째 회개와 화해의 마음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적 회개는 단순히 도덕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착하심에 감동되어 신앙생활 안에 가장 내밀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자기의 생활과 생각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 독생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참된 회개를 보여주셨다(골로 1, 19).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그것에 근거하여 나 온 것이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친지 창조 때부터 계획했던 그

미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참된 참회의 길을 걸을 자세를 확고히 갖추어야 한다.

사순절 영성의 다른 하나는 큰 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자신의 죄를 알 수 있도록 비추어 주어 회개를 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심을 갖게 한다. 그리스도의 양심성찰은 단순히 자기 반성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에 자신을 개방하고 복음에 비추어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당신 백성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부부관계로 묘사하면서(이사 1, 호세아) 이러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우리를 자신의 죄악을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즉 죄악이란 배신과 불충으로 하나님과의 우정을 파괴하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진한 아픔을 남기는 것이다.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기다리고 포용해 주시고 화해를 이루시는 자비 가득하신 성부를 계시하시지 않았는가.

이제 사순절동안 우리는 더욱 강하게 더욱 깊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서교실 37

그의 말을 들어라 (루가 9:35)

변모(變貌)의 의미, 목적에 대해서 많은 다른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변모」의 위대한 사실이 일러지고 있는 것이다.

제 1 제자들을 위해서 있었다고 하는 설(說), 제 2 예수 자신을 위해서 있었다고 하는 설(說), 제 3 예수 복음의 「우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었다고 하는 설(說). 모세,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한다. 그들이 예수와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 복음이 구약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두 사람이 사라지고 예수만 홀로 남아있을 때, 하늘에서 「그의 말을 들어라」(루가 9:35)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이것은 예수 복음의 「구약의 완성」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예수는 모세이고, 엘리야이며, 그의 완성이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사라집니다」(고전 13:10). 이제 모세, 엘리야가 필요없다. 오직 예수만이, 예수의 십자가만이, 십자가에 의한 죄사함의 신앙만이, 신앙만의 신앙만이 필요한 것이다, 신약성서의 이 위대한 핵심적인 대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헤르몬산(山) 상에서 변모(變貌)가 있었던 것이다.

예언자 하박국은 613조의 구약율법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하바 2:4)는 한 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근본의(根本義)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롬 1:17).

우리는 죽은 의식(儀式)과 도덕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변모 산의 예수의 「영광 몸」을 흠송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마춤 · 대여□
신 부 의 집
 *웨딩드레스·연주복·
 비디오촬영·폐백의상
 신부부케·야외촬영
 판통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 6951
 정인기(논저노)
 최영자(헬레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고려 안경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바로 서원 옆
 ☎ 72-5770
 김홍균(베드로)

개원
김생기 산부인과 의원
 전주시 고사동 1가 25번지
 (신라당 옆, 윤호영의원 내)
 ☎ 6-6077
 전문의 김생기·신수미(실비아)

교 구 소 식

1. 교구 혼인법원 : 25일 (화) 오전 10시, 장소-사목국
2. 4지구 교리교사 월례회 및 정기총회 : 23일 오늘 오후 2시30분, 장소-신동천주교회
3. 제1차 제4기 레지오 교육 : 3월 1일 9시40분~17시, 장소-가톨릭센터
참가비-3천원, 대상-제1차 제1기~제3기 수료자 천원, 간부 및 간부후보자
4. 제2대 1지구 중·고지도자 정기총회 : 3월 2일 오후 2시
장소-중앙성당 쉼 회합실내, 준비물-회비 1천원, 필기도구, 각본당 지도자현황서
5. 군중후원회 월례회 : 3월 3일 오후 7시, 가톨릭센터
6. 성모 푸른군대 피정 : 3월 6일 10시~16시, 장소-덕진천주교회
초대강사-정호경 신부님·한상갑 회장님
준비물-미사·도시락·회비 1천원
7. 전주 하나회 월례회 : 23일 (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사회복지회관
8. 마니피캇 합창단원 모집 : 대학생으로서 가톨릭 음악에 관심이 깊은 신자 및 예비신자 ※ 신입생 환영, 문의-가톨릭센터 안내실
9. 무주천주교회 전화번호 변경 (2월 28일부터) : 사제관·사무실-(22) 2308
수녀원-(22) 2398

목요성서 개강 : 3월 6일 (목) 오후 7시 반, 문의-교육국 (0041~3)

“성서를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성 예로니모)

※ 가정기도 시편 26:6-11 독서 : II 고린 2:14-17 복음 : 마태 11:28-30

잡 간 !

이제 시작이다 !

이리 신동천주교회가 어렵게 임시본당을 마련해 지난 9일 박정일 주교님의 집전으로 설날미사 결 첫미사를 가졌다. 주교님은 이날 강론에서 신동교회의 탄생을 경하하고 신자들이 공동체생활을 통해 친교 봉사 증거의 표상이 될 것을 당부하셨다.

이리시 북부지역을 분할받은 신동교회는 올해 새 성전을 세울 계획인데 성전을 짓기 전에 본당신부님이 부임하셔서 임시본당 마련 등의 곤란을 겪었다. 지난달 말, 강당, 사제관, 사목회 조직 등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교회를 맡아 천막을 쳐서라도 빠른 시일안에 미사를 드리라는 명을 받은 박종상 신부님은 부임 즉시 신자들과 함께 강당을 찾아다녔으나 마땅한 곳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신자들은 교우집 창고를 수리해 쓰거나 돌아가며 가정미사를 드리는 것까지 생각하던 중 주님의 도우심으로 현재의 강당을 찾게 되었다. 50명 규모인 이 강당은 신자들의 노력과 창인, 주현, 금마교회의 도움으로 십자가, 제대 등을 마련해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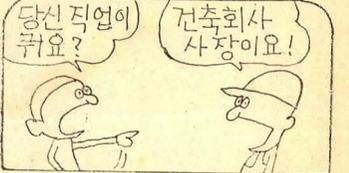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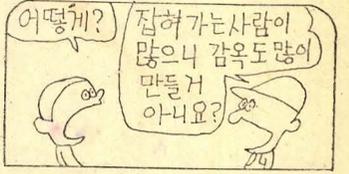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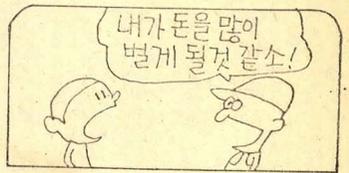
한편, 사제관도 성전 신축부지 곁에 새로이 마련되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교구설립 50주년기념 시작과 더불어 기초 놓여지는 주님의 집인 만큼 더욱 큰 정성을 다하련다.

이 기회에 교구의 모든 신자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한다.

이리 신동본당 사목회 부회장 이근성(도나도)

요심이 (655) 김병오



직원 모집

1. 모집인원 : 사무장 1(여) 관리장 1(남)
2. 응모자격 : 사무장-대졸 관리장-고졸이상
3. 대우 : 사무장-20만원 관리장-15만원 (상여금 년300%, 퇴직금 년100%)
4. 제출서류 : 전화로 문의
5. 서류마감 : 2월 26일까지
6. 서화동천주교회 @ 8307

최 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대여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2496 @ 8658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칼라TV·VTR·전자레인지 외 가전제품 일체



금성 북전주 대리점

팩토링 분할 판매

(교우분은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안춘기(베네딕도) 김금수(세시리아)

※ 금성 부녀사원 모집중 전북대학교 입구
☎ 3-2419 74-2419

부동산 투자 상담 (토지, 임야, 상가, 주택, APT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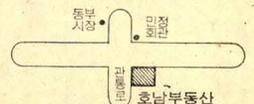
- * 컴퓨터 정보처리 (전북 최초)
- * 2,000만원 영업보증제 실시

호남부동산중개유한회사

오 재 천 (안드레아)
(원평성당 사목회장)

전주 ☎ 75-0247

(관동로 민정회관 옆 2층)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1. 수녀님들 인사이드: 새로 오신 박사비나 수녀님, 권
마리아 수녀님 환영합니다. 이비비나 수녀님 부산으
로 가셨습니다. 수녀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2. 여성 제21차 꾸르실료: 21일~24일까지
본당참가자-박옥혜·조은희·장정선 자매님
선배 꾸르실리스트들의 많은 기도와 빨랑카 부탁함
3. 주일학교 어린이 졸업식: 오늘 오후 3시 미사후
주일학교 개학-3월 2일
4. 구역봉사자 모임: 3월 3일 오후 8시
봉사위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5. 부녀회 월례회: 25일 어머니미사 후
6. 주일학교 어린이 1일피정: 26일 오전 8:40~오후 5시
까지, 참가대상-4·5·6학년 전원
준비물-미사도구·필기도구·도시락, 회비-5백원
7. 고등부 학생회 정기총회: 오늘 학생미사 후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 환자봉성체: 25일 오후 3시부터
환자를 모신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9.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은 월납하여 본당운영에 협조합니다
10. 젊은이 성가대 (미사)에 많은 참석바랍니다
매주일 오후 6시 성가연습 있음
11. 금주전례: 해설-임영빈, 기타전례-한테레사 가정
차주전례: 해설-전병주, 독서-조흥기 부부
기도-한기성 부부, 봉헌-조흥기 부부,
웃불-유정순·이두철,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499,700원 교무금: 502,000원
지난주 신축금: 190,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1. 복자부녀회: 3월 1일 오전 10시
2. 어머니성가대 성가연습: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 병자봉성체: 매월 둘째주 금요일 오후
4. 유아세례: 매월 셋째주 토요일 저녁미사 후
5. 주일학교 졸업식: 23일 오후 3시
어머님들 많은 참석 바랍니다
6. 86년 학생회 임원과 지도자 단합대회: 24일
장소-도립공원 대둔산
7. 가정방문: 25일 오전-태3반(송누리아씨)·오후-태4
반(최재마씨), 26일 오후-태5반(백모니카씨), 27
일-태8반(김마리아씨), 28일 오전-태7반(이글라라
씨)·오후-태6반(최마리아씨)
8. 사순절 돼지저금통을 안가지가신 분은 사무실에서
속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9. 축! 결혼: 3월 1일
신랑-정진협(요한), 신부-유진경(바울라)
10. 금주 성당청소: 월-다위의 탐pr, 토-셋별pr
차주 성당청소: 월-사도의 모후pr,
토-자비의 모후pr
11. 금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최재준 ②진재마
차주전례: 해설-최희숙, 독서-①김윤자 ②강주호
□ 지난주 봉헌금: 235,440원 교무금: 595,250원
외국난민헌금: 127,723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사목회장 이 정 우

- 1. 신용조합 정기총회: 24일 오후 2시
※ 조합원통장, 도장 지참
2. 본당 우정의날: 26일 저녁 ※ 예비자 초청
3. 사목회의: 28일 저녁미사 후
구역 대의원회: 3월 1일 저녁미사 후

- 4. 가정방문 일정
27일~28일-외어두, 3월 3일-외어두, 4일-석장,
5일-계월, 6일-원희암·묘동, 7일-마치·수월
5. 금주전례: 해설-이우동, 독서-①김봉길 ②이종철
봉헌-김영원회장 부부
차주전례: 해설-안현주, 독서-강덕용·유순천
봉헌-유춘근회장 부부
6. 지난주 순정미인: 강덕용
7. 교무금은 월납제로 지켜주세요
2차 특별헌금-44,070원
□ 지난주 봉헌금: 134,220원 교무금: 43,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향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미사전
2. 꾸리아 모임: 오늘 오후 2시
3. 공소 순회미사: 23-마음리(오후 3시)
광곡리(오후 5시)
4. 성가대: 매주 목요일-어머니미사 후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에 부활성가연습이 있으나
교우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5. 사순절기간에 토기와 돼지를 살찌게 기름시다: 돼지
저금통을 배부받지 못하신 가정은 사무실로 오셔서
돼지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늘봉헌: 강기호 부부 차주봉헌: 김광한 부부
7.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함문권, 독서-①문치구 ②박병환
공식미사: 해설-김낙원·김은경
독서-①차상열 ②김낙균
저녁미사: 해설-고현주, 독서-①김정민 ②정진선
□ 지난주 봉헌금: 374,260원 교무금: 126,000원
미수금: 249,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삼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 1. 울드레아: 공식미사 후, 24일 오전 4시30분-마냐나
마, 오후 5시30분-꾸라우슬라 ※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제29회 전동학생회 정기총회: 23일 학생미사 후
소강당에서
3. 유아세례: 3월1일 오전 11시
4. 사목회·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5. 주일학교 졸업식: 23일(오늘) 3시 미사후
6. 주일학교 교리교사 임원개편: 회장-김윤수,
부회장-방유경, 총무-방순석
※ 수고하시겠습니다
7. 봉헌담당: 홍제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949,400원 특별헌금: 428,360원
교무금: 196,0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 1. 사목회의: 3월 1일 오후 8시
2. 수요일 미사시간 변경: 오후 7시로(26일부터)
3. 고백성사: 지하성당 고백소에서 미사 시작전
15분간
4. 오르간 반주자 모집: 전례부나 사무실에 연락
5. 비품헌금: 익명-2만원
6. 자모회: 오늘 11시30분
7. 임원환자나 아프신 분은 언제든지 본당신부에게 연
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619,240원 교무금: 337,000원
미수금: 274,000원